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7호 [루계 제2198호]

주제 101

(2012). 11

17

토요일

음력 10. 4

6. 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대를 이어 펼쳐지는 인민사랑의 정치

국제사회계가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 치가 변함없이 펼쳐지고 있는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을 두고 국제사회계는 백두산 천출위인들의 숭고한 인민관, 고백한 인민적풍모를 높이 찬양하고 있다.

만마신문은 『임파이어』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의 생애는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친 한현생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이탈리아 렐레암비엔테 TV방송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 각하께서는 일찌기 손에 무장을 잡으시고 일체와의 항전에 천체 인민을 불러일으켜 나라를 해방시켰으며 조선인민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시었다.

주석께서는 인민을 가장 훌륭한 스승으로 여기시였다.

그리고 있어서 인민의 행복은 곧 자신의 행복이었다.

집비브뤼신문 『헤럴드』는 김일성주석은 나라의 수령이시기 전에 천체 조선

서 쪽잠과 체기밥도 달게 여기시였다.

기네주체문화학회상연구회 회장은 김정일각하께서는 인민의 행복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으시며 인민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쳐신 그야에 대한 전설적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고 격찬하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인민생활 향상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계신다.

참으로 김정일각하의 살림집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었으며 완공된 많은 살림집을 일반주민들에게 무료로 안겨주시였다. 또한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세계급의 유원지를 건설하도록 하고 그 준공식에도 참석하시였다.

도이췰란드 MS려행사는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인민사랑은 김정은령도자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그이께서 열치시는 정치의 최고원칙이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여 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언제나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 그들의 손

찬양

로씨야신문 『우리의 집 쇼 치』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의 평도방식에서 특징적인 것은 선대수령들의 위엄을 그대로 계승하시여 인민사랑의 정치, 후대사랑의 정치를 펼치시는 것이다.

그이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다가 려차에서 순직하시였다.

참으로 김정일각하의 살림집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었으며 완공된 많은 살

림집을 일반주민들에게 무료로 안겨주시였다. 또한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세계급의 유원지를 건설하도록 하고 그 준공식에도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처럼 자신의 아픔보다도 령도자를 그리며 몸부림치는 인민들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시고 다심한 사랑을 부어주신 그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령도자는 동서고금에 없다.

김정일각하와 김정일장군님의 인덕정치를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김정은동지께서

반영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제시하시였다고 글을

은정송하였다.

이것은 새 세기 민족의 운

명개척과 조국통일의 강력한

무기를 안겨준 특출한 혁사

작공적으로 된다고 글은 격

찬하였다.

글은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해 변함없이 들팔나가야

할 기치라고 하면서 그 근

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

을 따뜻이 잡아주시는 모습.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얼굴을 다퉏여주시는 모습 등은 그이께서 인민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는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대국상의 날에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축도이다.

김정은은동지처럼 자신의 아픔보다도 령도자를 그리며 몸부림치는 인민들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시고 다심한 사랑을 부어주신 그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령도자는 동서고금에 없다.

김정일각하와 김정일장군님의 인덕정치를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김정은동지께서

반영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제시하시였다고 글을

은정송하였다.

이것은 새 세기 민족의 운

명개척과 조국통일의 강력한

무기를 안겨준 특출한 혁사

작공적으로 된다고 글은 격

찬하였다.

글은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해 변함없이 들팔나가야

할 기치라고 하면서 그 근

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

우리 민족끼리는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변함없는 기치

재미동포인사의 글

최대한 묶어세워 총동원 할수

있게 한다.

이 리념은 자기 운명의 주

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자각파

책임을 깊이 심어주어 민족

의 혁력을 최대로 묶어세우

고 그 위력을 날김없이 발양

시켜나가게 한다.

북파 남, 해외의 운 민족

이 하나로 굳게 뭉친다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도 못해낼 것

도 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조국통일의 혁력을

이룩하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

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서 민족의 용맹과 기상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도록 온 겨

례를 힘 있게 추동하는 고무

적기치이다.

이 기치를 높이 들팔나갈 때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킬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혁력을

위업을 성취할수 있다.

온 겨례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최우선적지위에

놓고 적극 지원해야 하며 그것을 반대하거나 제거하려는 온갖 시도를 단호히 반대, 배격해야 한다.

본사기자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과 남조선주둔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승 60돐에 즈음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 여러 나라 조선인민파의 친선 및 현대성단체들에 보내는 호소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 2013년 7월 27일은 전승 60돐을 맞는 뜻깊은 날이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일으킨 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조선정전협정으로 바꾸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여 아며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본군요소인 남조선주둔 미군이 즉시 철수하여야 한다.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필리핀련대성위원회는 조선의 통일이 하루속히 실현되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며 더욱 양기 되는 조선인민의 통일열기와 맞게 국제적인 현대성운동을 확대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북파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일일천후로 바라는 최대의 숙원은 바로 통일이다.

미국과 그에 야합한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은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전체 조선인

제 4 차 전국 어머니 대회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에 대한 략관에 넘쳐 울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종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대회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어머니들과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환적계기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평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니들과 여성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혁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라는 혁사적인 연설을 하였다.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어머니들과 여성들 앞에 나서는 파업과 봉사를 홍보해주시였으며 그들의 생활과 사회활동조건을 훌륭히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여성들을 선군시대 여성혁명가로, 강성국가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혁량으로 키워주시고 어머니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 블세출의 대성인들을 빛깔어울리시여 만금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

히 이어주시고 조국과 인민,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어머님들의 공적과 고결한 생애는 영원불멸할것이다.

보고자는 절세위인들과 혁명의 어머님들의 따뜻한 손길아래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새롭게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니들과 여성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혁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울해 3.8국제부녀절에 회한한 음악회를 마련해주시고 몸소 참석하시여 여성들을 축하해주시는 자식들을 많이 낳아 기운 어머니들을 모성옹으로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강성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통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은 최상최대의 행운을 위하여 혁신하는 애국녀성으로 살며 일하도록 이끌어주고 계신다.

대회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여성들을 선군시대 여성혁명가로, 강성국가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혁량으로 키워주시고 어머니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 블세출의 대성인들을 빛깔어울리시여 만금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

히 가정의 행복도 후대들의 밝은 미래도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어머니들은 시대의 더없는 자랑으로 된다.

제일조선녀성들과 어머니들을 비롯하여 해외동포녀성들도 김정민원성대를 꽂아 이어나가며 사회주의조국의 통성번영을 위한 사업에 뜨거운 지성을 바치고 있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 여성들을 끌끌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혁명과 건설의 힘 있는 혁량으로,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당당자로 민족주체로 세워주신 절세위인들의 혁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보고자는 온 나라 전체 어머니들의 열화 같은 충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여성들을 축하해주시는 자식들을 많이 낳아 주체혁명가로, 당을 따라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혁명의 전세대 여성들의 투쟁정신과 기품을 따라우며 사회에 적극 진贡하였다.

어머니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기획민사성』에 담긴 깊은 뜻을 심장에 새기고 가정을 화목하고 혁명적인 모범가정으로 만들어 온 사회에 생기와 활동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어머니들은 당의 선군정

치를 받아들이 우리 군민대단결을 철통같이 다지고 원군미풍을 더 높이 발휘하며 1950년대의 남강마을 여성들처럼 조국수호전에 용약 멀쳐나갈 통일위업을 성취하는데 이바지할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어머니들이 숭고한 후대 판을 지니고 강성조선의 앞날을 위하여 자식들을 많이 낳아 품위

숭고한 애국의지로 안아온 새 세기 산업혁명

자식 경제 시대인 오늘날
자기의 지식 자원에 의거
하여 과학기술 혁역에서 최
첨단을 돌파하고 부강조국
을 건설하는 것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원대한 뜻
이고 구상이었다.

그이께서 비범한 선견지명
과 정력적인 령도로 지펴주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
길 속에서 지금 공화국의 과
학기술은 급속도로 비약하고
있다.

주체99(2010)년 1월 1일이
였다.

이 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장군님께서는
2009년을 보내고 2010년을
맞이한 오늘 경과가 깊다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
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
과적으로 발사하고 주체철생
산체계를 완성한 것을 비롯하
여 부강조국 건설에 아로새
거칠 력사적 사변들이 수없이
일어난데 대하여 이야기 하시
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제일
궁지 놓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CNC기술이 세계적 수
준을 돌파한 것이다. CNC기
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쥔
것이야말로 지난해에 우리
가 이루한 수많은 성과들이다.

운데서도 가장 특기할 성과
이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우리
식의 현대화를 실현할 구상을
무르익히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때는 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던 고
난의 행군시기였다고, 지금
도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강도를 찾아가던 때의
일이 눈에 선하다고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세해의 첫 날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고 많으시였던 만
나라의 기계제작공업현대화
에서 이루어 성과가 그리도
만족하시여 회의를 더듬으신
장군님이 이하였다.

CNC기술은 1970년대에 국
소형 컴퓨터가 나오고 그에
의하여 조종되는 공작기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발전
하기 시작한 기술이다. 기계
제작공업에서 제일 앞섰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는 CNC제
작기계를 달기형으로 만들어놓고
다른 나라들에서 따라오
지 못하게 하면서 이 기술을
독점하려고 하였다.

천리 해안의 예지로 세계적
인 학술발전축제를 깊이 통
찰하신 장군님께서는 지난
10여년간 희천련하기계 종합
공장의 과학자들, 기술자들
준에 대한 존엄한 시련
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새 세기 산업혁명의 용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온 나라에
온 세상에 대한 존엄한 시련
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새 세기 산업혁명의 용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온 나라에

로동자들이 세계를 향해 파
감하니 나아가도록 적극 고무
해주시었으며 공장이 새 세
기 산업혁명의 선각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
도록 격려해주시였다.

그이께서 처음으로 현하기
제를 보아주신 때는 1995년
4월이였다.

그때 어느 한 공장을 찾
으신 장군님께서는 《현하기
제》라는 자호가 붙은
CNC출방전기공장을 보시면
서 더없는 만족을 표시하시
다. 너무도 기쁘시여 만족
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오
래동안 그 기계를 살펴보시
던 그이께서는 여러번이나
박수를 쳐주시며 개발자들의
성과를 축하해주시였다.

그후에도 여러 차례 공장을
찾으시여 희천련하기계 종합
공장에서 더욱된 성과는 새
세기 산업혁명과 같은 의
지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희
천련하기계 종합공장은 국보
적 가치를 가지는 기업소이
라고, 현하기계 개발자들은
우리 공업의 선각자라고 높
이 평가하시였다.

조국이 가장 존엄한 시련
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새 세기 산업혁명의 용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온 나라에
온 세상에 대한 존엄한 시련
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새 세기 산업혁명의 용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온 나라에

보기 드물다. 조선이 역사적
으로 짧은 기간에 CNC공업
을 창설한 것을 보면 역시 나
라의 경제발전, 기술발전도
정치가 의해 좌우된다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의 경
험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고
CNC공작기계 생산의 국제적 경쟁력을
비상히 높일수 있게 되었다.

하기에 새 세기 산업혁명
의 앞장에 선 희천련하기계
종합공장을 돌아본 로씨야
인 스트루멘트홀딩 회사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공감을 토
로하였다.

《희천련하기계 종합공장
을 보니 금시 온몸이 굳어
다면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유명한 명예에도 어려웠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과 함께 불길을 더욱 세
차게 지펴올려 경제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는 것
은 그이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인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마
라 공화국은 위력한 자립적민
족경제와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속에서 새인을 경탄케 하
는 기적을 창조하며 강성국가
로 솟구쳐오르고 있다.

김윤철

현대판 《홍길동》

지난 2010년 9월 어느 날이었다. 자장
도의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CNC화로 일신된
공장을 일일이 돌아보시다 문득 누군
가를 알아보시고 반색을 하셨다. 그
를 보신 장군님께서는 최첨단돌파전
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하시고 대동강파수종합
농장과 일말련편공장에서 만났는데
오늘은 또 여기서 만난다고 하시며 현
대판 《홍길동》이라고 호탕하게 말씀
하셨다. 그로 말하면 대동강파수종합
농장과 일말련편생산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 품질과 CNC화를 실현하는
데서 크게 활약한 과학자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인재의 역할
을 중시하신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깊
은 관심 속에서 현대판 《홍길동》들이
지식경제강국건설에서 커다란 봇을 담
당하고 있다.

자체의 프로그램을

2001년 가을 어느 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개발한 프로그램들을 보았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주의깊게 보
신 그이께서는 나라의 정보산업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서 기본은 우리식의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식
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
가야 한다고 하셨다.

과학연구와 기술발전에서 자기식의
것을 명줄로 끌어쥐고나가야 지식경제
시대의 추이와 요구에 맞게 높이,
더 빨리 비약할 수 있다는 지름길을 밝
혀주는 가르침이었다.

시대를 선도하는 노래

2009년 8월 어느 날이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작곡가와
자리를 함께 하시고 그에게 CNC에 대
한 노래를 하나 만들라고 이르셨다.

그날로부터 그는 대로 창작에 전념하게
됐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CNC기
계의 대량원리를 상상하면서까지 선율
을 찾으려고 했으나 좀처럼 상이 떠오
르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금은 지식경
제의 시대이며 어느 분야에서나 첨단
을 돌파하기 위한 뛴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첨단을 돌파하라는
주제로 노래를 지으면 시대를 선도해
가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신

본사기자

위인의 유모아 중 유도 죽었다

두해 전 12월 초 어느 날이
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주체철
생산체계를 완성한 기업소
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을 높
이 평가해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기업소의 일군들
과 동료제급이내가 이내
에 콕스와 리흔한다고 생각

하고 생각하라!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쾌한
말씀을 새기며 일군들은
위인의 결단과 의지가 있어
김철이 콕스와 결별한 것처
럼 불원간에 종유와도 영

영 결별하고 우리식 열간
암연을 기어이 완성하게 되
리라는 것을 믿어의심치 않

았다.

콕스와 함께 종유도 죽었

본사기자

인류의 마음 속에 영원히 만발하는 태양의 꽃

중국 대련에서 진행된 국화전시회 김정일화전시대를 돌아본 참관자들

격정 토로

회장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꽃은 처음 본
다. 김정일화는 정말 화려한
꽃이다고 말하였다.

대련시민 국평은 홍분된
소감을 이렇게 펴려하였다.

김정일화는 명화종의 명화

이다.

꽃에는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이 그대로 비껴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일화를 끌
없이 사랑하고 있다.

태양의 꽃은 인류의 마음
속에 영원히 만발할 것이다.

본사기자

바로 그 사랑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일어서는
북인민들의 정신력을 낳았고 그들의 담백한 인간됨,

북체제의 굳건함을 낳은것이 아닌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인간사랑의 정치를 펴시여
오늘 이북은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일떠섰다.

그분들의 뜻을 이은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이북
의 정치를 령도해나가시니
북의 미래는 더욱 밝고 창

창하다.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정
신적부의 창조자, 항유자들이
사는 땅, 인간소외의 이
황량한 세상을 없애고 인간
을 위기와 파멸, 불행에서
구원할 사랑이 넘치는 나라
가 바로 북이였다.

사랑이 넘치는 나라, 얼마
나 좋은 말인가.

어릴적 동화책을 보면서
불러보던 말이다.

신비스러운 동화세계가 현
실로 된 사회, 이것이 바로
내가 본 이북의 실체였다.

재미동포 김미령

인류의 마음 속에 영원히 만발하는 태양의 꽃

중국 대련에서 진행된 국화전시회 김정일화전시대를 돌아본 참관자들

격정 토로

고아름답다.

베이징에서 열린 2012년
제14차 중국국제화초원예전
람회에도 김정일화들을 내
놓았다.

앞으로 위인청의 꽃을
더욱 활짝 피우려고 한다.
중국 곤명 앙화원 유한
공사 총경리 상덕은 격동
된 심정을 이렇게 펴려 하
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김정일화
전시대를 찾고 있다.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
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높은

우리가 말고 콕스가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한 말대로 종유
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종유
쓰는 가열로를 고온포기
연소기술을 받아들인 가열로
로 개조하고 있으면 좋다고,
그 어떤 미련도 가지지 말고
종유가 없는 열간암연을 기
어이 성공시킬 때 대해 가르
치시였다.

콕스와 함께 종유도 죽었

본사기자

사랑이 넘치는 나라

~~~~~

행하게도 사고로 그만 얼굴

의 코뼈가 부스러져 숨구멍  
에 막혔다. 한다고 그는 형체  
도 없어졌고 입으로 숨을 쉬  
니 감기를 비롯한 온갖 잡병  
이 때없이 그를 피롭히고 호

흡이 멀려 말도 겨우 했다  
는 기습아픈 사연. 더욱  
기적이 어려운 것은 나이가 다  
찬 처녀애가 볼썽없는 얼굴

을 하고 학교에 다녀야 하는  
나는 지금 그것을 알 수 있  
을 것 같다.

그날은 내가 금강산관광을  
마치고 속소로 돌아온 날이  
었다. 습관대로 일기책을 꺼

내들던 나는 무심결에 TV화  
면에 시선을 보내었다. 방송  
원의 이야기가 나의 호기심  
을 끌었던 것이다. 사실의 주  
인공은 21살의 처녀. 금시  
당을 터친 한명기 꽃같이  
아름다운 이 처녀가 바로 얼  
마자까지도 사람들에게 자기  
의 얼굴을 보이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였다는 사연은...

평안북도 고성군에서 출생한  
그녀는 4살나던 해에 불

에 태어난 그는 그만 얼굴  
을 놓았고, 그는 형체도 없어  
졌다. 그는 형체도 없어졌다.  
그는 형체도 없어졌다.

너무도 놀라운 이 진실 앞  
에서 나는 한동안 얼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었다.

누가 부탁지도 않은 편지  
를 병원에 떠워보낸 담임선  
생님이나 3년 동안이나 지극  
한 정성과 의술로 환자를 완  
치시킨 의사선생님들이 이  
모든 현실적인 사랑은 과연  
여러서 온것이란 말인가.

그때 문이었다. 내가 북녘  
을 그리워하고 북녘인민들의  
모습이 나의 뇌리에 언제나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바로  
이북의 사회주의가 서로서로  
사랑으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뭉쳐진 사회였기 때문이다.

재미동포 김미령

시

## 금강산 탐승 소묘

리회웅(재증조선인청년련합회 연변지구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1  
우리 어찌 철없이 사랑만을 바라  
청년절에 안겨주신 원수님의 그 은정  
이 청춘 힘껏 바쳐 보답을 하세  
늙어지면 그때와서 세모금을 마시세나  
하늘나라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내린  
다는

꿈에라도 보고싶던  
내 조국의 천하절승 금강산!

오, 금강산아!  
오늘은 재증조선청년 우리들이  
청년절의 꽃무지개를 타고  
선남, 선녀되어 너를 찾아왔나니

원수님을 만나뵈온 우리들이 반갑다고  
금강산의 미인송은 떨지어 미동하고  
푸른 숲은 독특하고 아지베키 순젓는데  
오선암의 술마시면 다섯신선  
우릴 반겨 축배를 들자  
술을 사려 어딜 갔나



# 동족대결은 자멸의 길

지난 12일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 안보토론회하는데 참가하여 《북의 NLL 무력화시도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느니, 《대북억지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니 하며 도발적인 언사를 맹랑 내뱉었다.

극우보수로 체질화된 그가 자기의 대결적 بن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족파의 대결로 얻을 것은 민족의 저주와 민심의 버림밖에 없다.

《유신》독재자 박정희의 지나온 행적을 놓고보자.

박정희는 남조선인민들이 피흘려 쟁취한 4.19의 고귀한 성과와 통일 열망을 《5·16군사쿠데타》로 짓뭉개버렸다.

그리고는 이를 정당화하고 자기의 파쑈독재적인 악성과 매국적인 친미사대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극악한 반북대결과 북침전쟁책동으로 나갔다.

박정희는 미국과 야합하여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을 《년례행사》처럼 벌려놓았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승공통일》을 떠들어댔다.

《유신헌법》을 조작하여 《총통제》와 같은 독재폭압통치를 수립

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조치》

지금 남조선에서 《대선》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세력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새것을 지향하는 진보는 애련단일화로, 낡은것을 고집하는 보수는 《보수대련합》을 주장하며 《선거》경쟁을 날로 치열하게 벌리고 있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승리의 판관은 40대를 누가 전진하는가 하는 것이다.

력대로 남조선의

《선거》판을 보면 새것을 지향하는 20~30대는 진보성향이, 50~60대는 보수성향이 강한 것으로 되어있다. 결국 40대를 누가 쟁취하는가에 따라 《선거》판이 좌우지될 수 있다는 것이 정세분석가들의 견해이다.

남조선에서는 지난 세기 80년대에 민주화투쟁을 한 세대를 《486세대》라고도 부르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1980년대는 남조선에서 민주화투쟁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번진 시기였다.

장장 18년에 걸쳐 지속되

여온 《유신》독재의 종말을

치》, 《위수령》, 《비상사태》를 벤질나게 선포하였으며 수많은 애국적인 사들과 인민들을 《빨갱이》, 《간첩》의 루명을 씌워 감옥으로 끌어가다 못해 무참히 학살하였다.

박정희의 18년 독재기간 인민혁명 당시 사건, 민청학살 사건, 남민전 사건, 동부卑를린 사건 등, 북파 편결시킨 각종 《간첩단사건》만 해도 수백 건이나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유신》독재자의 반북대결 광증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어 박정희는 민족과 세계 앞에 합의하고 수표한 7.4동성평등도 배신적으로 부정하고 《북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한 통일은 안된다.》느니,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하는 대결에 들어섰다.》느니 하고 고아하면서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광분하였다.

또한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살수 없다. 민족이 둘이 되든 셋이 되든 관계 할바가 아니다. 《유신》의 안보가 제일이다. 장벽구축공사에 종력을 기울이라.》고 부르짖으며 수백리에 달하는 군사분계선의 전구간에 대한 콩크리트 장벽구축공사를 벌려놓아 조국강토를 두동강내에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 행위까지 감행하였다.

그뿐 아니라 외세와 손을 잡고 동

족을 겨냥한 북침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고 민족을 배반한 인간

쓰레기들과 극우반공분자들을 내몰

결, 동족대행위는 온 민족의 격분과 증오를 자아내게 되었으며 이는 남조선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반 《유신》독재투쟁으로 폭발되게 되었다.

결국 민족의 저주와 민심의 베림을 받은 박정희 《유신》독재는 뿐만 아니라 뒤흔들리게 되었고 그 자신도 역시 짐복을 개의 종양에 맞아 비극적 운명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새누리당》의 《대선》후보의 대결적 언행은 리명박여도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는 그의 속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명박이 권력을 잡자마자 한 치이란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면서 혁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완전히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전면적으로 파괴시킨 것이다.

리명박은 《비핵, 개방, 3 000》, 《인권문제》, 《북핵 포기 우선론》 등을 내걸고 공화국을 적대시하면서 금강산관광을 중단시켰으며 저들이 조작한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활발히 진행되던 북남사이의 각종 교류와 협력, 평화도 다 차단하였다.

그뿐 아니라 외세와 손을 잡고 동족을 겨냥한 북침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고 민족을 배반한 인간

쓰레기들과 극우반공분자들을 내몰

아 품임없는 반공화국도발들을 일삼아 못해 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모독 중상하는 특대형 국가례로 범죄까지 감행하였다.

하기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리명박여도의 무분별한 반북도발에 무자비한 뒤풀매를 안기었으며 만약 또다시 도발한다면 정의의 조국통일 성전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숙히 경고하였다.

지난 5년간 리명박 《정권》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적극 동조해온 《새누리당》 후보로서는 현 집권자와의 비참한 운명에서 교훈을 단단히 찾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가까워오면서 반북대결 본성을 다시금 날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리명박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선거》에서 보수세력의 인심을 얻기 위해 아무리 반북목청을 둘구어도 차례로 차별되는 자멸의 비참한 신세뿐이다.

제명을 다 못 산 《유신》독재자와 백척간두에 내몰린 리명박의 구차한 운명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만일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겨례의 통일열망을 외면하고 계속 반공화국 대결과 도발에 나간다면 선임자들과 달리 될 수 없을 것이다.

명금통

기만하여 《6·29선언》을 발표하던 그때와 신통히 비슷하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새누리당》이 뒤집어진 허울은 벗겨져 보수색채와 독재의 짐은 더 뚜렷해지고 선명해졌다.

오늘 남조선민심은 1980년 대 못지 않게 새 생활, 새 정치를 강렬히 지향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바라는 열망 또한

하기야 뿐리는 속일 수 없고 물려받은 피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 로태우의 《민정당》에 뿐리를 두고 있으며 오늘의 리명박독재 《정권》을 정치적으로 뒤집친 당이 《새누리당》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정체화신》,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의 뒤를 이은 또 하나의 군사강제로 로태우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민심을

본사기자 김현록

제국주의 침략의 혐오에는 강자가 악자를 힘으로 내려 누르고 기만으로 불평등에 속조약을 체결한 실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일제가 체결되지도 않은 가짜 《조약》을 조작, 공포하여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강점하고 40여년 동안이나 포악무도한 지배와 억탈을 감행한 것과 같은 사실은 일찌기 없었다.

1905년 11월 17일 불법, 무효의 《을사5조약》이 날조된 때로부터 10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시대도 변하였다.

그동안 《을사5조약》의 비법, 무효성과 범죄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자료에 의해 날

날이 고발, 단죄되었다.

또한 《을사5조약》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이 조작한 《정미7조약》과 《한일합병조약》을 비롯한 모든 《조약》들과 후속조약들도 원칙이 비법적이고 무효이며 일제의 조선강점자체가 혐사

에 보기 드문 대범죄라는 것을 확인되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아직도 일본으로부터 응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저들이 저지른 국악무도한 범죄를 성근히 반성하고 청산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혁사외교에 매달리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은 물론 광범한 국제사회의 분노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과거 범죄를 외곡분출하는 목적은 지난날의 죄악을 덮어버리고 또다시 그 전철을 밟으려는데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일본은 독도강탈에 발악적으로 매달리는 한편 미국과 남조선과의 군사훈련강화와 무력증강, 원자력과 우주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핵무장화와 우주군사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적도태의 구축 등 재침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갈수록 무분별해지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재침책동은 국악한 제국주집단인 리명박박수집권세력의 사대국 행위와 동족대결책동에 문이다.

갖은 기만과 권리침해로 권력을 틀고 앉은 리명박 《정권》은 《미래지향적 판계》니 뛰어하며 일본의 파

거법죄를 백지화하고 《조용한 외교》의 허울을 쓰고 침략자의 평양에 강화하고 있다.

또한 그 무슨 해상구조니, 침관이니 하는 명목 밀에 일본과의 군사연습분야에서의 결탁을 강화하고 있다.

지어 쓸개 빠진 역적집단은 동족대결에 광분하던 나머지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지구상》 훈련을 구실로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무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였으며 혁대 통치자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던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을 통해 남조선을 통제로써 세계의 재침책동의 발판으로 삼겨버렸다.

동족을 해치기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의 죄악도 서슴없이 물어두고 그와 주지 없이 공모결탁하는 리명박박국일당의 반민족적 망동은 온 거제의 침수는 분노로써의 재침책동의 발판으로 삼겨버렸다.

민족내부에 역적배들이 살판치면 민족이 편안하기는커녕 또다시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 빠질 수 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는 조선사람이라면 일본의 재침책동과 함께 그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을 해치려는 현 보수집권세력의 매국 죄행위를 단호히 짓부수어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 《486세대》와 오늘의 현실

를 비롯한 대학가의 열혈청년들이 서 있었다.

새 것을 지향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청년들의 열기면 호소는 인민들의 심금을 울렸고 그 세찬 민주화 바람을 타고 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났으며 그것은 점차 남조선 전지역을 휩쓸었다.

이렇게 되자 바빠맞은 군부강제들은 《부의 조종》에 의한 것이라느니, 《폭도들의 란동》이라면서 땅콩과 장갑차를 비롯한 특공대 무력을 내몰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이로써 광주에서만도 수천명이나 학살되는 대참사가 벌어졌고 온 광

1980년대 민주화투쟁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을 이룬 것은 1987년 6월에 있은 민주 항쟁이다.

광주의 괴이다우에서 태어난 전두환군사사파 《정권》이 인민들의 민주화를 탄압으로 거두었지만 자

주, 민주, 통일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드높은 의지와 열의를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

그 앞에는 청년학생들과 함께 사무원, 소상인을 비롯한 종업주들이 서 있었다. 《호헌 철폐!》, 《독재 탄핵!》의 합성은 남조선의 거리거리에 차넘치며 미

국과 독재 《정권》을 전률케 하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의 뒤를 이은 또 하나의 군사강제로 로태우가 직

선제개헌을 요구하는 민심을

높다. 그것이 바로 죽은 정치를 끌끌내고 새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의 《정권교체》 요구이다.

광주의 괴이다우에서 태어난 전두환군사사파 《정권》이 1987년 6월에 있은 민주 항쟁이다.

그것은 1987년 6월에 있은 민주 항쟁이다. 그 옆에는 《정체민주화》, 《국민대통합》...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의 뒤를 이은 또 하나의 군사강제로 로태우가 직

선제개헌을 요구하는 민심을

기만하여 《6·29선언》을 발표하던 그때와 신통히 비슷하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새누리당》이 뒤집어진 허울은 벗겨져 보수색채와 독재의 짐은 더 뚜렷해지고 선명해졌다.

오늘 남조선민심은 1980년 대 못지 않게 새 생활, 새 정치를 강렬히 지향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바라는 열망 또한

하기야 뿐리는 속일 수 없고 물려받은 피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 로태우의 《민정당》에 대비해 《새누리당》 후보(《새누리당》 후보)에 대

한 보도분량이 다른 후보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불공정보도현상이 우려스러운 상황을 넘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

투정질을 하였다.

《새누리당》의 다급한 처지를 그대로 가늠하게 하는 화폭이다. 저들의 썩어빠진 반민족적자세에 대해 교훈을 찾고 반성해 대신 그 책임을 방송사에 전가하여 끝에 화풀이까지 해내고 있으니 얼마나 급해 맞았으면 이러한 생여지를 부리겠는가 하

는 것이다.

《대선》을 위한 선전수단으로 언론을 장

악하기 위한 《새

# 꽃 속에, 노래 속에 흘러간 첫 어머니 날

공화국에서 지난 11월 16일은 첫 어머니 날이었다. 지금으로부터 51년 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1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자녀 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라는 혁사적인 연설을 하신 날을 계기로 제정된 첫 어머니 날을 맞으며 온 나라가 홍성 거렸다.

뜻깊은 첫 어머니 날을 만 사람의 축복속에 의의 있게 맞이하기 위한 사업이 국가적 관심속에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제4차 전국 어머니 대회가 성대히 열려서 여성 존중의 사회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조선 여성들에게 기쁨을 더해주었다.

이날 TV와 방송에서는 『나의 어머니』, 『여성은 꽃이라네』, 『어머니 생각』과 같은 노래들이 련이어 울리고 전국도처의 꽃방들은 어머니들에게 줄 갖가지 꽃들을 사가는 사람들로 여느때 없이 봄비였다.

어느 가정에서나 자식들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활짝 편 아름다운 꽃들을 안겨주며 드겁게 축하해주는 풍경이 이채를 떠였다. 그 모습을 우리는 평양시 중구역 교구동 241민방에 살고 있는 김인란녀성의 가정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김인란녀성이 말은 일도 잘하고 자녀 교양도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앞에 이른 우리는 방안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에 이끌리며 멈추어섰다.

더울세라 추울세라 이

몸을 살펴주셨네  
힘들세라 아플세라 안아  
주셨네  
어머니 어머니 인자하신  
어머니

피아노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유정한 노래소리는 사회와 가정을 위해 애국현신의 맘과 남모르는 정성과 바쳐가고 있는 이 땅의 어머니들에 대한 하찮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가슴에 스며들었다. 진정 한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와 집단, 조국과 민인을 위한 길에서 인생의 기쁨을 찾는 아름다운 여성들, 어려웠던 고난의 시절 남몰래 허리띠를 한번 더 조이고 누구보다 참도 적게 자면서 남편과 자식들을 일터

와 학교로 떠밀어보낸 강직한 여성들이 이 땅의 어머니들이 아니던가....

『어서 들어갑시다. 지금 아이들이 제 어머니에게 저마끔 꽂다발을 안겨준다. 노래를 불러드린다면 애단이 랍니다.』

세대주 조옹철이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집안으로 이끌었다. 삼일포토산물공장에서 일한다는 그는 노상 생글벙글거리며 안해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성수가 나서하였다.

듣고보니 그럴만도 했다. 남편과 한泓장에서 일하는 안해 김인란녀성만 보아도 해마다 년간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이름난 혁신자인데다가 아들 조현우는 9살 나이

에 벌써 전문가 못지 않은 솜씨로 컴퓨터를 다루고 노래를 잘하여 학교적으로 소문이 났다고 한다. 금성1중 학교에 다니는 딸 조현경이도 뛰어난 문학적 재능으로 이미 여러권의 글작품집을 위대한 장군님께 올려 기쁨을 드린 자랑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열매는 저절로 무르익지 않는 법. 자식들의 어엿한 성장에는 어머니인 김인란녀성이 바쳐온 남모르는 노력이 깃들어있었다. 직장일로 바쁜 속에서도 어머니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자식 교양을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공장에서는 이름난 혁신자로, 가정에서는 남편과 두 자식의 충실한 방조자, 스승이 되여주는 김인란녀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나라의 많고 많은 어머니들의 모습을 뜯겨내고 싶었다.

절세위인의 축복을 받은 김인란녀성의 가정에 더 큰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집을 나서니 밖에서도 온통 경축 분위기로 설레이고 있었다. 첫 어머니 날을 축하하는 다체로운 공연들이 진행되고 어머니를 모시고, 안해와 함께 국장과 영화관들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남녀로소들도 흥성거렸다. 그들의 손에 순에 『어머니 날을 축하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해요』라고 씌여진 축하장들과 꽃다발들이 들려있었다. 가는 곳마다 꽃잎색, 노래일색이었다.

본사기자 흥법식



거리마다 넓은잎 가로수들은 거의 다 잎이 졌다. 아침 출근길에 달리는 빠스에서 나날이 달리지는 빠스가 가을 풍치를 감상하는 것도 하나의 정서이다. 빠스가 어느 한 정류소에 잠깐 멎어섰을 때였다. 누군가가 『야! 빨간 감.』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모두의 눈길이 거제에 쏠렸다. 건물을 둘러싼 감나무들에 감이 대풍대룡 매달려 있었다. 잎새에 가리워졌던 빨간 감들이 자태를 드러내고 아침해빛 단상 —

이채로운 감풍경을 보며

속살이 물렁물렁해서 늙은이들도 맛있게 들수 있으며 다른 열매들은 다 떨어져서 서리내리는 늦가을까지 달려있는 열매인것으로 하여 감나무를 문, 무, 쟁, 흐, 절이 다 있는 나무라고도 일러왔다.

오늘의 이채로운 감풍경은 어떻게 마련되었던가.

빨갛게 익은 탐스러운 감알들을 보니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드러내고 아침해빛 단상 —

을 받아 구슬알처럼 반짝였다.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감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많이 심고 가꾸어 왔다. 그것은 감나무의 열매, 잎 등 모든 것이 약재로 많이 쓰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주고 수명이 길며 새가 동지를 틀지 않을뿐 아니라 벌레가 생기지 않아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며 맛 좋은 열매가 열리고 탕엽은 질 좋은 거름으로 되는 감나무를 사람들은 일품가지의 덕을 갖춘 나무라고 하였다.

또한 글씨력을 하기 좋은 넓은 잎이며 화살촉재료로 좋은 단단한 나무줄기, 걸과 속이 꽉같이 붉어 표리부동하지 않고 익은 열매의

함경북도도서관은 많은 독자들이 찾고 있다.

기초과학부문과 금속공업, 기계공업, 경공업, 농업, 의학, 문학예술부문의 도서들, 인민대학습당, 중앙과학기술동보사를 비롯한 수십개 단위의 흥미지자료열람을 통하여 각이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최첨단돌파와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실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대체 및 전자열람, 특화자료들에 대한 봉사를 잘하고 있다.

도민위원회, 도민민병원, 청진광산금속대학, 청진전설전문학교 등 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학생청년들이 배두산전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창작들과 혁명적이 서술되어 있는 도서들을 열심히 탐독하

붉은 감.

아버지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전하는 그 감들이 파일 남색 상점 매대들에 오르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조국의 농업과학자들은 뾰족감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그 품종을 들이었다. 파일

끌이 뾰족하게 생긴 뾰족감만 해도 세우고 육종된 긴 물감이며 긴 칼감을 비롯한 10여 종이나 된다고 한다.

달고 찰기 가 있어 감칠맛이 특별한 뾰족감의 살속에는 당

분과 단백질, 유기산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냥 먹어도 좋고 풍감이나 약밥, 감술 등 갖가지 영양이 높은 식료품을 만들거나 보약재로도 널리 쓰이는 감들이 인민들의 생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나날이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과 더불어 마을과 공장, 기업소구내길은 물론 유원지에도, 그리고 길가에도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새로운 감풍경이 펼쳐졌다.

아버지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전하며 곳곳에 펼쳐진 감나무풍경이 이 나라의 모습에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박 단희

네 팔신문 『쓰러 미끄』 6일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반적 무상치료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에서의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인민사랑의 정치, 인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최우선업무로 내세우신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조선 전쟁의 준엄한 시기부터 실

『조선의 네 전반적 무상치료제』

팔신문의 글

도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무상치료제 실시를 위한 준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나라의 모든 물질기술적

재부를 전쟁 승리에 돌려야 하는 엄혹한 시기에 인민

들의 전장보호증진을 위해

김일성주석께서는 전반적 무

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

여 밝히시였다.

김일성주석의 정력적인 영

력으로 전쟁 승리를 확

실했다.

전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 의료시설들이 전쟁 전보다

더 늘어났으며 수많은 보건

일군들이 양성 배치되고 의약

품과 의료기구 공급 사업이

잘

나기 위해 조치를 취해주시

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 보건체계가 조선에 펼쳐지게 되었다.

조선인민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보건체계를 세워주신 김일성주석을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 그리워하면서 그의 업적을 대를 이어 전해가고 있다.

본사기자

## 재롭게 모습을 일신한 만수교청량음료점

6번과 7번 생맥주를 주십시오.』

『나는 1번 맥주를 신청합니다.』

...

풍치수려한 보통강판에 새로 일어서 얼마전에 문을 연 만수교청량음료점 맥주홀의 풍경이다. 여기서는 흰 쌀과 보리의 배합비율에 따라 품종이 7가지로 분류되는 공화국의 유명한 대동강생맥주를 봉사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7가지 품종의 생맥주를 봉사해오고 있는 평양시의 경호관 맥주점에 이어 있다.

김책체련합기업소,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청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과 과학연구부문에서 생산을 늘이고 연구사업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들을 보장해주는 사

업도 잘하여 근로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도

서관의 정보화수준을 더욱 높이며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본사기자

자기의 기호와 구미에 맞게 빵과 청량음료를 맛있게 들고 있는 남녀로소의 모습은 볼수록 훈훈하다.

방옥화 만수교청량음료점

지배인은 앞으로 빵,

청량음료 종류를 더욱 늘여 스빠

게피, 빼짜 등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음식들도 만들

어 풍사할 계획이라고 말하

였다.

만수교 청량음료점은 1970년대 초에 건설된 혁사가 오랜 청량음료점이다. 빵과 차, 우유를 전문 봉사하는 식당으로 나온 이 청량음료점은 주변 풍차가 이를 담고 음식 또한 좋아 사람들 속에 소문이 났었다. 근 40년의 혁사를 사랑하는 만수교 청량음료점은 올해 초 옆 자리에 현대적인 봉사기지인 만수교고기 상점이 건설될 때에도 옛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4월 새로 일떠선 만수교고기 상점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옆에 있는 만수교 청량음료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선보수할 때 대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원래의 건물을

완전히 들어내고 지난 5월에 착공한 만수교청량음료점은 단 몇 달 사이에 본래보다 더 크고 현대미가 나게 일떠세워졌다.

연건축면적이 3,000여 m<sup>2</sup>에

달하는 만수교청량음료점은 마치 보통 강판에 편 련꽃을 편상케 하듯 통일동을

하게 생겼다. 건물내부의 천

정과 현관홀 등도 모두 련꽃

모양으로 우아하고 품위있게

장식되었다. 인민을 위한 시

책이 활짝 편 련꽃의 아름다움만한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어졌다. 방옥화지배인은 설명하였다.

청량음료점은 주방시설과 맹동시설도 모든 것이 다 현대적으로 그려져 있다. 편리하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복과 현관홀 등도 모두 련꽃 모양으로 우아하고 품위있게 장식되었다. 평양시 동대원구역 대신동

에 사는 리창숙(49살)녀성은 궁전처럼 희한하게 꾸려진 만수교청량음료점은 건물도 최고수준이고 음식맛도 더 할나위없다며 앞으로 더 자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나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 시하는 공화국이 애달로 인민을 위한 세상이라고 소리쳐 자랑한다.

본사기자 박금일



# 민족의 향취 넘치는 곳

## 조선민예련합상사

조선민예련합상사 민예전람실로는 오늘 국내외에서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의 벗들이 찾고 있다.

얼마 전 우리는 평양의 한 복판에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며 높이 솟아오른 평양 국제문화회관 1층에 자리잡고 있는 민예전람실을 찾았다. 『민예전람실』이라는 현판이 해빛을 받아 반짝이는 전람실에는 우리 인민의 유구한 민족문화유산을 보여주는 미술작품, 도자기, 수예품들을 비롯한 수천여 종의 민예품들이 수만점이나 전시되어 있었다.

하나의 큰 예술작품과도 같이 특색있게 꾸려진 민예전람실을 돌아보는 우리에게 이곳 민예전람실 실장이 전시되어 있는 민예품들을 소개해 주었다.

고려상감청자꽃병과 옥돌공예품을 비롯한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민예품으로부터 시작하여 옥류금, 가야금을 비롯한 민족악기에 이르기까지 민족예술작품의 거의 모든 종류들이 진



## 김치담그기

지로 한 것이다.

선조들은 이른 봄에 구운 독이라야 단단하고 잡내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김치독을 우수, 경침이 지나 땅이 풀린 직후의 흙을 빚어 구웠다. 이렇게 만든 독은 먹는 시기에 따라 제일 큰 독, 독보다는 작고 배가 부른 중두리, 중두리보다 작은 바랭이, 아래우가 좁고 배가 부른 항아리 등으로 되어 있었다. 중두리부터 항아리까지는 길을 윤기나게 오지물을 입힌 것이였다.

김치의 중요한 특성은 또한 온도를 잘 조절하여 정하면서도 산뜻한 맛을 내게 한 것이다.

『농가월령가』에서는 『김치항아리를 짚에 싸서 깊이 물어 온도의 변화를 막는다』고 하였다. 선조들은

우리 나라에 서는 예로부터 김치를 중시하였다. 1849년에 나온 책 『동국세시기』에서는 『김장과 장담그기는 일년의 2대 행사』라고 하였다.

『림원집록지』에서는 김치를 임장재(소금, 술, 향료에 남새를 절인 것), 차제(소금, 쌀로 발효시킨 것), 저제(젓갈, 생강, 장, 마늘, 식초를 넣은 것), 제제(염장재, 저제와 비슷한 것)로 구분하고 그 가공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김치는 오랜 역사과정에 식물성과 동물성을 함께 가진 완전한 영양식료품으로 발전하였으며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주되는 반찬으로, 부식물로 되었다.

김치의 중요한 특성은 김치에 고추와 마늘을 넣는 것이다. 고추와 마늘은 김치를 발효시키는 첫 산균의 번식을 크게 도와준다. 사람들은 겨울동안 부족되며 쉬운 비타민C를 김치를 통하여 섭취하는데 고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E와 매우 성분인 캡사이신은 비타민C의 산화를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 고추의 캡사이신은 김치에 넣은 것 같이 산페(색과 맛이 변하고 새نة나는 것)하는 것을 막아준다.

김치의 중요한 특성은 또한 김치담그는 독을 여려가

리향복의 친구인 한음이 대신으로 승직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지방의 사또로 있다가 소환되어 서울에 돌아왔다.

한음은 자기의 늙은 부모들이 편히 여생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 뒤풀에 별채 하나를 새로 짓길 이어드렸다.

별채 짓는 역사가 끝났을 때 리향복이 무슨 일이 있어 한음을 찾아왔으나 공교롭게도 한음은 집에 없었다.

한음의 부친이 리향복이를 보자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워 맞아주었다.

『새 집을 지어놓고도 당호(집이름)가 없고 또 글씨 받을 곳이 없어 리대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

장군님께서는 대뜸 기분이 좋지 않으시여 치료대책을 세워주는 한편 출장지에 나가있는 강국일을 부르고 회순의 늙고 퍼기없는 얼굴을 아픈 시선으로 더듬으셨다.

『어머니, 이게 웬 일입니까? 이렇게 되도록 왜 나한테 알리지도 않았습니까?』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그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시여 준절히 말씀하시였다.